



화왕(花王)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 보호하였는데, 삼춘 모란, 꽃이 크고 예뻐서. 봄철 석 달의 좋은 시절.

가절을 맞아 예쁜 꽃을 피우니, 온갖 꽃보다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이 다투어 모여 왔다.

의인화, 우의적

⇒ 화왕의 빼어난 미모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얼굴에 옥 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고 아장거 미인, 장미 홍안, 장미꽃의 색깔.

리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화왕에게 아뢰었다.

춤을 추는 여인.

장미의 아름다운 외모 묘사.

"이 몸은 백설의 모래 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목욕하여 몸의 먼지를 씻었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임금님의 높이신 덕을 듣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몸을 받아 주실런지요?" 잠자리

교언영색, 아첨하는 장미--> 간신의 모습.

이 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흰 백발을 한 장부 하나가 든중한 걸음 포의지사, 포의한사(벼슬하지 않은 가난한 선비) 할미꽃, 백두옹, 연륜이 많음.

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백두옹의 외모 묘사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백두옹(白頭翁)입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 할미꽃, 머리가 흰 노인. 넓고 멀어서 아득한

은 산 경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옵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 고고하고 품위 있는 모습. 쇠와 돌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

라상을 받들어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돕고, 금석의 극약(劇藥)으로써 임금님의 몸에 있는 독 임금님에게 올리는 밥상. 독약보다는 약하나 적은 분량을 쓰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

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비록 사마(絲摩)가 있어도 군자된 자는 관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명주실과 삼실-좋은 것. 질경이-굿고 하찮은 것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하는 자세.

아첨하는 신하보단 직언을 하는 신하가 주변에 있어야 한다.

⇒ 가인과 백두옹의 이야기

한 신하가 화왕께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

화왕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취사선택(取舍選擇), 화왕에게 갈등 유발.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가인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어찌할꼬?"

백두옹, 충신

장미, 간신

⇒ 화왕의 갈등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함을 비판. ↘

"제가 온 것은 임금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뵈오니 그렇지 않으십니다.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 하지 않는 이

간신

충신

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낭관(廊官)으로 파묻혀 머리가 한 나라 안통 사람, 어진 인재였으나 벼슬이 낭관에 그쳤음. 낮은 벼슬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오니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예시, 인제가 동용되지 않는 현실 비판.

화왕은 마침내 다음의 말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 ⇒ 화왕의 깨달음



갈 래 : 설화, 우화

성 격 : 우의적, 풍자적, 교훈적, 대조적

제 재 : 꽃(모란꽃)

주 제 : 임금에 대한 경계(또는 간언)

특 징 : 꽃을 의인화한 우리 나라 최초의 창작 설화, 고려 시대 가전체에 영향, 구토설화와 함께 의인화 설화의 효시, '도입-전개-절정-결말'의 소설적 구성, 신문왕을 깨우치기 위해 들려준 이야기.

출 전 : 삼국사기

해 설

설총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설화로 우언적(寓言的)인 글이다. 《삼국사기》 설총 열전에 실려 있고, 《동문선》에서는 「주의 奏議」 편에 <풍왕서>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신문왕이 설총에게 울직한 심사를 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설총이 왕에게 들려준 것이다. 화왕에게 장미와 할미꽃이 찾아와 각기 자신을 써달라고 청한다. 장미는 미모와 요염함을 내세워 임금을 곁에서 모시겠다고 청했고, 할미꽃은 서울 밖의 큰길 옆에 살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며 살았음을 내세운다. 여기서 큰길(大道)은 할미꽃이 군자의 도리에 따라 살아온 자임을 자부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할미꽃은 화왕이 비록 부족한 것이 없으나 좋은 약으로 원기를 보충하고 극약으로 독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함을 역설하여, 자신의 역할이 바로 약과 같은 것임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화왕이 장미에게 기울어지자, 할미꽃은 고래로 왕이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요망한 무리를 멀리한 예가 드물다고 항변하니 결국 화왕이 잘못을 시인하고 할미꽃을 받아드린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문왕은 설총에게 그가 한 우언(寓言)이 깊은 뜻이 있으니 이 이야기를 적어 두어 왕자의 경계로 삼을 것을 청한다.

이 작품은 설총이 왕에게 치자(治者)의 도리를 직언하기보다 우언을 통해 암시하므로써 그의 유학정신과 문학성을 아울러 성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장미를 요염한 여인으로, 할미꽃을 심성을 도야한 장부로 남성과 여성을 양극화시켜, 신라 통일 이후 남성우월의 지배원리가 강화된 유교적 원리가 엿보이며, 문학적으로는 후에 가전과 같은 의인문학의 새로운 문학적 표현영역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